

뮤지카 프로젝트 요약본 (Muzika Project Teaser)

Muzika Foundation & 주식회사 마피아컴퍼니

Muzika is a blockchain-based self-sustaining ecosystem that will revolutionize the digital music industry.

1.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OUR PROBLEM)

지난 20 년간 우리는 음악산업에서 'CD 앨범에서 디지털 파일로의 전환', 그리고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의 전환'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전자는 음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후자는 산업 전체의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음악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음악가들의 몫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개인들은 많은 경우 단순한 일회성 업무에 대해 과도하고 지속적인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불법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가를 진심으로 응원하지만, 유통업자들과 퍼블리셔들이 규정해놓은 '소비자'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음악 산업이야말로 블록체인 기술의 이상과 가능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소수 퍼블리셔들과 플랫폼들에 의한 독점적 지위 행사, 계속되는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 명확하지 않은 이익분배구조, 시장에 대한 팬들의 참여의 제한과 같은 문제들은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이 블록체인 기술에 있다고 믿습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해결방안 (OUR SOLUTION)

기존의 음악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P2P 거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음악가들이 직접 음악을 유통할 수 있게 한다'는 수준의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접근방식은 산업 전체에 혁신을 불러오기에는 그 명분이 빈약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 또한 얕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포티파이, 아이튠즈, 유니버설 뮤직 등 기존의 플랫폼들과 저작권 사업자들은 공고한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플랫폼들과 그것을 둘러싼 중앙화된 산업 구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더 성공적이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탄생시켜야만 합니다. 단순히 음악가들에게 분배되는 몫을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독립된 블록체인 플랫폼은 자신들이 총

[illegible]

'1 세대 음악 블록체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더 큰 네트워크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악 '생태계'를 만들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Muzika 생태계는 팬들에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생태계에서 팬들은 '소비자'라는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음악의 생산, 분배, 소비, 그리고 이익분배에 이르기까지 창작물 수명주기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인을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은 팬들이 Muzika 생태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태계는 팬들이 이루어낸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창작물 수명주기의 전 과정을 반복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자생적이고 정의로운 디지털 음악 생태계를 확립함으로써 **Muzika** 는 (1) 불필요한 중간자와 매개자를 없앨 것이고, (2) 음악가들과 팬들에게 권한과 힘을 돌려줄 것이며, (3) 중앙화된 유통 및 퍼블리싱 권력을 탈중앙화시킬 것이고, (4) 시장 참여자들 간 수익 분배의 올바른 균형을 되찾을 것입니다. **Muzika** 는 음악

창작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그 창작 과정의 열정과 노력에 비례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생태계 구조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상세한 설명은 웹사이트 www.muzika.network 와 웹사이트 상의 전체 백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Muzika 팀 (OUR TEAM)

Muzika 는 Mapianist, MyMusicSheet, 그리고 KPopPiano 등 다수의 글로벌 음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마피아컴퍼니의 창업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마피아컴퍼니 플랫폼 사용자 수는 170 국 200 만 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수천 명의 음악가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Muzika 와 마피아컴퍼니의 창업자들은 한국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젊은 창업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연령 22.3 세로 구성된 팀은 2016 년에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사외이사인 Michael Cho**로부터 엔젤투자를 유치했고, 2017 년에는 **네이버 산하의 벤처캐피탈 Springcamp**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마피아컴퍼니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술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만든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 명의 창업자들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30 세 이하 30 인’(Forbes 30 Under 30 Asia 2018)**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Muzika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의 아주 간략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인서(공동창업자, 대표)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사업가. 3 개의 회사의 설립자이자, 이더리움의 초기 채굴자. **허상민(공동창업자, 최고기술책임자)**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 15 살에 이미 웹게임으로 큰 돈을 벌었던 글로벌 동세대 최고의 개발자.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은상 수상자, KISEF 미국심리학회장상 및 대상 수상자, ISEF 국제대회 소프트웨어부문 한국 대표, HCLT 우수학술논문 제 1 저자, 딥러닝과 자연어처리, 블록체인 분야의 젊은 전문가, 7 명의 최고 수준의 기술팀의 리더.

이장원(공동창업자, 운영이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영어 및 중국어 능통자, 프로페셔널 피아노 그룹 ‘더 세렌디피티’ 창립자 겸 리더, 글로벌 교육 NGO ‘YouthGlobe’ 한국지부 공동창립자, 서울대학교 배달음식 어플 ‘샤탈’ 공동창립자, 블록체인/스타트업/정보기술/금융 분야의 젊은 전문가 네트워크의 중심.

김지현(리드 블록체인 개발자) 경기과학영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Systemic Programming, FOSS(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Rust Compiler, Parallel Computing, GPGPU Programming 등을 모두 능숙하게 다뤄왔고 다루는 최고의 풀스택 개발자. Dev-Ops 와 Server Administration 분야의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10,000,000 일일사용자와 50,000 동시접속자 서버 운영 경험. 초창기부터 다양한 블록체인 및 인접 분야 개발에 참여해온 블록체인 전문가.

이정우(리드 블록체인 설계자) 민족사관고등학교 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블록체인 연구자 겸 투자자. 러시아 G20 정상위 회담의 대한민국 청년 대표자. 글로벌 교육 NGO ‘YouthGlobe’ 한국지부 공동창립자. 서울대학교 투자학회 ‘SNUVALUE’ 대표.

Muzika 의 고문(advisor)진은 최고의 IT, 금융, 저작권, 음악산업, 블록체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 년 4 월 10 일 기준 확정된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추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조민식 카카오 사외이사(전 삼정 KPMG 본부장), 홍준기 카카오뱅크 사외이사(전 UBS 한국대표), 최인규 스프링캠프(네이버 벤처캐피탈) 대표이사, 박진수 전 YG 인베스트먼트 최고재무책임자, Brian Kang Coinsortium 파트너, 조면식 법무법인 동녕 대표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4. 우리의 강점 (OUR SUPERIORITY)

팀의 강점 (Team Superiority)

Muzika 는 또 하나의 비트코인 버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Muzika 팀은 또 하나의, 2017 년 말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를 억지로 붙인 한탕주의 팀이 아닙니다. Muzika 는 3 년 간의 생존과 성장을 통해 스스로를 검증해낸 최고의 팀, 단순히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것을 넘어 3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탈 없이 상호 믿음과 시장 혁신에 대한 의지로 수많은 난관을 이겨낸 팀의 새로운 결작입니다. 전세계 음악기술 업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 7 명을 포함한 13 명으로 구성된 Muzika 팀의 의지와 안정성은 시간이 검증했습니다. Muzika 의 창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기술기업과 Forbes 를 비롯한 글로벌 언론이 인정한 경쟁력과 노련함을 갖췄습니다. Muzika 팀은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고 수준의 개발력, 최고 수준의 외국어 능력,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우리는 지난 3 년간 쌓아온 강력한 기반을 주춧돌 삼아, 음악 산업의 역사를 뒤집고, 다시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강점 (Structural Superiority)

중앙화된 분배구조, 중앙화된 권력질서, 불필요한 매개자, 저작권리의 지속적인 침해 등, 그 어떤 산업보다 음악 산업이야말로 블록체인이 기술이 혁신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이에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등장, 혁신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음악 분야는 대표적인(landmark)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부재합니다. 이는 음악 산업과 관련된 기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P2P 거래 또는 저작권 보호에 집중해왔고,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시도들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치 있지만, 음악 산업에 진정한 혁신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음악가들의 참여를 넘어, 네트워크 효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팬들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암호화폐 경제(Token Economy)를 기반으로 한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생태계를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은 분명 어려운 작업이지만, Muzika 팀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기술적 강점 (Technical Superiority)

우리의 기술적 강점은 우리의 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Muzika 팀은 일곱 명의 개발자들을 포함하여 13 명의 최고의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고기술책임자와 리드 블록체인 개발자의 경우, 앞서 프로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평판, 능력, 그리고 경력으로 볼 때 음악, 스타트업,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에서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우리의 개발 역량은 전세계의 어느 음악산업 블록체인 팀들과 비교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느 블록체인 팀들에 비교해서도 최고라고 자신합니다.

기존 사업으로부터의 글로벌 경쟁력 (Global Superiority from Underlying Asset)

2015 년 10 월에 설립된 이래로, 마피아컴퍼니는 전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과 음악가들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글로벌 음악 플랫폼들을 성공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매우 우수한 수준의, 디지털 음악에 최적화된 저작권보호 기술, 거래 기술,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uzika 는 그 탄생부터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운영하는 플랫폼들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음악가들과 글로벌 음악 팬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